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 ☎ (02)732-1434~5 FAX (02)722-5406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KOREAN PUBLISHING FOUNDATION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수신 : 출판담당 기자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수상자 선정

○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수상자:

대상 1명, 금상 2명, 공로상 1명, 특별상 4명

- 대상: 김선정(편집경력 27년, 서해문집)
- 금상: 김민기(편집경력 30년, (주)도서출판 길벗)
- 금상: 김소영(편집경력 15년, (주)도서출판 보리)
- 공로상: 곽진희(편집경력 37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특별상: 사기순(편집경력 36년, 민족사)
- 특별상: 김장성(편집경력 33년, 이야기꽃)
- 특별상: 박영신(편집경력 22년, 북북서가)
- 특별상: 박혜진(편집경력 13년, 민음사)

○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신설 및 특별상 수상인원 확대

○ 1회 대상 수상자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철미, 이하 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편집 기획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출판계에서 처음으로 2022년부터 ‘한국출판편집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상, 금상 외에 공로상을 신설하고, 특별상 부문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다. 신설된 공로상은 출판계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편집자로서 출판문화나 학술 발전 또는 해외 출판 홍보에 공적이 큰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올해부터 특별상 부문의 대상자를 확대한 이유는 학술, 교양, 종교, 사전, 대학출판, 아동,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를 내기 위해서이다.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은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출판 편집 경력 10년 이상인 편집자를 대상으로 총 28명이 신청하였고,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에 김선정**(편집경력 27년, 서해문집), **금상(2명)에 김민기**(편집경력 30년, ㈜도서출판 길벗), **김소영**(편집경력 15년, ㈜도서출판 보리)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로상을 추가로 수여**하게 되었는데, 수상자로 **곽진희**(편집경력 37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가 선정되었다. **특별상(4명)으로는 사기순**(편집경력 36년, 민족사), **김장성**(편집경력 33년, 이야기꽃), **박영신**(편집경력 22년, 북복서가), **박혜진**(편집경력 13년, 민음사)이 선정되었다.

한국출판편집자상 신청 자격 제한의 특징은 이 상을 제정한 재단 임원(이사 및 감사)이 대표인 출판사의 직원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였다. 한편 출판사 지명도나 규모도 모두 초월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편집된 책만 가지고 심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심사에는 한국출판학회 회장을 역임한 동원대학교 명예교수 부길만 심사위원장,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인 푸른사상사 한봉숙 대표, **제1회 대상 수상자 이승우 편집자(도서출판 길)**가 수고해주셨다.

다수의 편집자와 출판인들이 이번 행사에 동참해준 덕분에 훌륭한 편집자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출판편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편집자들의 자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시상식은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심사총평. 끝.

[붙임]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2024) 심사총평

해마다 시행하는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올해 3회가 되었다. 제1회 3명, 제2회 5명에 불과했던 수상자가 금년에는 8명으로 늘어났고, 그 분야도 학술, 교양, 종교, 사전, 대학 출판, 아동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는 후보자 자격을 1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한 편집자로 바꾸었는데, 이는 근무 연수보다는 실적을 중시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대상자를 찾기 위함이었다.

심사의 기준은 예년처럼 다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편집관이 뚜렷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 둘째, 출판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오래 읽히는 책을 기획·편집한 사람. 셋째, 제출된 출판물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대상자로 올라온 28명 후보자들의 활동 내용과 실적물 및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살피고 의견을 나누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대상 1명, 금상 2명, 공로상 1명, 특별상 4명이 정해졌다. 출판편집자 공로상은 올해 처음 추가된 부문인데, 출판계와 우리 사회에 끼친 공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지난해 1명이었던 특별상 수상자가 올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상자 선정 결과와 수상자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 : 김선정

금상 : 김민기

금상 : 김소영

공로상 : 곽진희

특별상 : 사기순

특별상 : 김장성

특별상 : 박영신

특별상 : 박혜진

<수상자별 선정 이유>

* 대상 수상자 김선정

수상자는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7년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전념함으로써 학술 출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책 읽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체험담을 기록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를 펴냄으로써, 학교의 독서교육에 크게 공헌했다. 이 책은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배움을 주고받는 뜨거운 공감과 성찰의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을 주축으로 책 읽기 수업이 확장되어, 이후 교육부에서 정식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수백 종의 책들을 기획·편집한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아우르는 과감한 발상으로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극서의 리스본까지, 3년 동안 무려 100개 나라, 1,000개 도시를 주유한 대장정의 기록인 『유라시아 견문 1.2.3』(이병한, 2016~2019), 세계적인 전설의 밴드 명반, 한국의 희귀 앨범 등에 관한 2,000여 컷의 사진과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편집 디자인 과정을 거쳐 탄생하여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자부하는 『라이선스LP 연대기』, 수백 개의 지도와 그래픽을 통해 러시아의 과거-현재-미래를 짚어 보며, 역사와 시사와 지정학을 아우르는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등이 있다.

수상자는 출판편집자로서 “단어 하나, 심표 하나, 행갈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도 관심과 의문을 품는 독자를 상대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기쁨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숨 막히는 긴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평생 편집자로 살아온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 “인문 도서들은 많이 팔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오래가고, 잊힌 듯하지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에 제 정성을 담고, 제 이름을 새겨 넣는 일은 기쁨을 넘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 금상 수상자 김민기

수상자는 1990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34년간 넥서스, 웅진씽크빅,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등의 기획 편집자 등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길벗의 실용서사업 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상자는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실용서를 꾸준히 기획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로는 자기만의 방’ 시리즈의 첫 책인 일인

생활자를 위한 집수리 안내서 『안 부르고 혼자 고침』(완주숙녀회·이보현 지음), 지식 없이도 그림을 깊이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림 감상 실용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최혜진 지음), 원서에서 중요한 30장면을 골라 담아, 원서 읽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작품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영어를 읽는 30일 : 작은 아씨들』 등이 있다.

수상자가 수십 년 동안 실용서 기획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수상자는 그러한 자세를 이렇게 말한다. “출판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고, 더듬더듬 일하며 책을 만드는 동안 세상은 거침 없는 속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재’의 사람들이 욕망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내놓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것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상자가 일하며 배운 것들을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고객’과 ‘컨셉’이라고 한다. 수상자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랜 기간 생명력을 가진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실천해왔다.

* 금상 수상자 김소영

수상자는 2009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15년간 고전, 시집, 그림책, 도감, 국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기획·편집하며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은 조만간 멸종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생물종을 기록한 세밀화 도감 『정부희 곤충기』 시리즈(1~6권), 2,600여 개의 올림말로 아이들에게 국어 바로쓰기의 핵심을 알려주는 사전인 『보리 국어·문법 바로쓰기 사전』, 속담의 유래, 속담에서 비유하는 동식물과 사물 관련 이야기 거리 등을 담아 그 분량이 1,304쪽에 이르는 『보리 속담 사전』 등이다.

이처럼 사전 편집에 힘을 기울인 수상자는 “사전 한 권을 엮는 일은 여럿이 발을 묶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초반, 중반, 후반부에 그리고 수시로 고비가 오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완주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상자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종이책 출판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드는 출판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수상자 자신이 기획·편집한 책들

이 바로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고 자부한다.

‘종이책에 담긴 내용의 가치와 책 자체의 물성을 사랑’하는 수상자는 “오자가 있는 책,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책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도 자료를 찾고 또 찾고, 교정지를 보고 또 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로상 수상자 곽진희**

수상자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편집자로 38년간 근무하며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930여 종에 이르는 도서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대학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수상자는 한국·일본 대학 출판부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국제교류에 앞장섰다. 아울러, 해외 출판인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해외 대학과 우수한 대학도서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국 출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상자의 대표적 편집출판물은 300여 명의 전문 집필진으로 구성되어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에 1,500여 개의 표제어를 집대성한 한국 최초의 『역사용어사전』, 고령화사회에 시니어들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펴낸 ‘제3기 인생 길라잡이 시리즈’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외 12종,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에게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한 한국어 교재 『사랑해요 한국어』(전12권) 등이 있다.

최근 수상자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문 지식과 교양 지식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한국학 관련 도서와 한국어 교재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 특별상 수상자 사기순**

수상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월간 <현대불교>, 불광출판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민족사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는 36년 동안 불교학, 명상, 순례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400여 종의 책을 기획·편집함으로써 우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로는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현재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 음식』,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도표로 읽는 명상입문』, 『인도 네팔 순례기』, 『불교

의 기원』 등이 있다.

수상자는 이처럼 전문서적들을 편집한 경험을 토대로 편집자는 전문성을 갖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수상자는 “끝없이 공부하고 인내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편집자의 삶은 수행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고백하며, 필자와 편집자의 관계는 임신부와 산부인과 의사의 관계와 같다고 비유한다. 아이의 탄생을 도와주는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성을 지녀야 하듯이, 서적의 탄생을 주도하는 편집자도 “필자를 리드할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깊은 공감력과 소통 능력이 있고, 필자가 신뢰할 만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을 때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수상자는 “좋아하는 책을 만든다는 행복감, 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보람”을 느끼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편집자”라고 자부한다.

*** 특별상 수상자 김장성**

수상자는 1991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33년 동안 다양한 그림책들을 기획·편집해 왔다. 수상자가 편집한 그림책들은 한국어린이도서상, 볼로냐라가치상 등 국내외의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의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수상자는 편집자와 그림책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일러스트레이션학교와 디자인대학원에서 그림책 창작론을 강의하며 그림책 작가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크게 공헌해왔다. 그가 현재 그림책 전문 출판사인 ‘이야기꽃’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가르침과 실천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은 2006년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은 『설빔』, 2015년 볼로냐라가치상을 받은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제1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받은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2015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및 2016년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스웨덴 최고의 번역서에 선정된 그림책 『수영장』 등이다.

수상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많이 펴냈지만,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는 품격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출판인들과 작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오늘 우리의 그림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중견을 넘어선 수상자는 오늘도 그림책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일을 출판편집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삼고 노력 중이다.

*** 특별상 수상자 박영신**

수상자는 2002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그린비, 창비, 문학동네 등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고, 현재 북복서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철학, 역사, 문학, 천문학, 만화,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편집출판물은 철학 연구서인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병권 지음), 역사가의 자서전으로 만해문학상을 받은 『역사가의 시간』(강만길 지음), 『여행의 이유』(김영하 지음),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지음) 등이 있다.

수상자는 편집자의 역할이 “세상의 문장들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일”이라고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작가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려운 학술서를 독자들이 좀 더 편안히 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매력을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왜 내가 이 원고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편집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수상자는 출판시장이 좁아지고 독자의 수가 줄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출판의 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출판의 풍성한 미래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다”는 수상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특별상 박혜진**

13년의 출판편집 경력을 지닌 수상자는 현재 민음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소설, 희곡, 시,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서적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로는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 김혜진 소설 『딸에 대하여』, 이혁진 소설 『사랑의 이해』, 『한국 여성문학 선집』(전7권) 등이 있다.

수상자는 “문학 편집자는 다른 분야의 편집자에 비해,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인식을 깨고 편집자의 역할을 확장시켜 왔다”고 자부한다. 즉 그는 조남주, 김혜진, 이혁진 등 예술적 가치와 독자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작가들을 자신만의 감식안으로 발견하고, 그 가치를 독자친화적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문학 편집자의 역할을 넓혀왔다.

또한, 수상자의 문학 편집관은 뚜렷하다. 즉, 작가와 독자를 발굴하는 문학 편집자에서 더 나아가, 시대의 한계에 도전하는 문학 편집자,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문학 편집자라는 신념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내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거나 시대의 한계를 증언하는 여성문학 작품들을 선별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 편집이 시대의 한계를 극복해낸 시도이고, 장강명의 논픽션 『당선, 합격, 계급』, 김수현의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 강덕위의 『밀레니얼의 마음』 등은 문학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해낸 사례이다.

이처럼 출판계가 어렵다고 하는 최근에도 출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며 창의적인 편집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여덟 분을 사회에 알리게 된 것은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출판편집자상 제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